안양규 교수의
경전이야기 <36>

메달 놓쳤을 때 마음이 아픈 이유

마라톤을 끝으로 아테네 올림픽 경기가 모두 완료됐다. 200여 국가에서 온 선수들이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며 금메달을 향해 선전했다. 우리나라 선수들도 여러 경기에서 선전해 국민들의 응원에 보답했다. 금메달을 목에 걸고 월계관을 쓴 한국 선수가 시상대에 올라 태극기를 향해 서 있는 모습을 지켜보면 감동이 밀려오는 것을 느낀다. 태극기가 천천히 공중으로 올라가고 애국가가 울려 퍼지면 환희와 감동으로 눈엔 눈물이 고이고 가슴엔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쏟아진다. 태권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대만의 선수와 대만 사람들은 자국의 국기와 국가를 사용하지 못하자 통한의 눈물을 흘렸다. 거대한 중국의 힘에 밀려 대만은 공식적으로 국가로써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금메달 획득은 단순히 특정 경기 종목에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에게 주어지는 상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다. 민족주의 내지 국가주의가 담겨 있는 것이다. 자기 민족 내지 자기 국가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다라는 신념을 스포츠를 통해 드러내고 확인하고 싶은 것이다. 우리나라 선수가 다른 나라의 선수들과 상대하여 선전할 때 우리는 환호하고 즐거워한다. 밤늦게까지 지켜보았지만 전혀 피곤하지도 않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나라 선수가 어이없게 타국의 선수에게 지게되면 낙담하게 된다. 잠을 참아가며 늦은 밤까지 지켜본 것을 후회하게 되고 피로가 엄습한다. 우리나라와 관계가 좋지 못한 나라의 선수와 경기를 하게되면 감정의 골곡이 더 심하다. 우리나라 선수의 승패에 가슴 조이며 초조해 한다. 반면에 우리나라 선수가 참여하지 않은 경기를 지켜볼 땐 좀 더 여유있게 선수들의 기량과 재주를 지켜보며 즐긴다.

왜 우리나라 선수의 경기를 지켜볼 땐 가슴 조이며 다른 나라 선수끼리의 경기엔 초연할 수 있을까? 다음의 경전(잡아함경)에서 그 답을 찾아보자. 부처님께서 촌장에게 말씀하셨다. "'만일 어떤 중생이 이 울비라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을 결박하거나 때리거나 꾸짖거나 혹 죽인다면, 네 마음에 근심 · 슬픔 · 번민 · 고통이 일어나겠느냐?' 촌장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이 울비라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 내가 아끼는 사람이거나 원하는 사람이거나 애정을 두고 있는 이거나 서로 친한 이라면, 그가 결박되거나 맞거나, 혹 꾸짖음을 듣거나 죽임을 당할 때에, 저는 곧 근심 · 슬픔 · 번민 · 고통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 중생에 대하여 내가 아끼지 않거나 원하지 않거나 애정이 없거나 서로 친한 사이가 아니라면, 그가 혹 결박되거나 맞거나, 꾸짖음을 듣거나 죽임을 당한다 한들 제가 어찌 쓸데없이 근심 · 슬픔 · 번민 · 고통을 일으키겠습니까?' "

촌장의 대답은 우리 중생들의 사고 방식을 잘 대변하고 있다. 자신이 아끼는 사람이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게 되면 애를 태우고 고통스러워한다. 자신의 애정이 더 많이 간 사람일수록 그 사람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그 고통이 비례하여 극심해 진다. 심지어 사랑하던 사람이 죽으면 상실의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따라 죽기도 한다. 그러나 자신과 관계가 없는 멀리 떨어진 나라에서 지진이 발생하여 수많은 사람이 죽더라도 자기가 정성 들여 키우던 애완견의 죽음만큼 고통스럽지 않다. 대상에 대한 애착 여부에 따라 고통의 감정이 일어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촌장에게 말씀하셨다. "중생들에게 생기는 갖가지 괴로움은 모두가 다 애욕이 근본이 된다. 괴로움은 애욕에서 생기고 애욕으로 인해 쌓인다. 그러므로 촌장이여! 만일 전혀 애착이 없으면 곧 근심과 괴로움의 번뇌도 없어질 것이니라."

괴로움은 애착에서 생기고 쌓이는 감정
배타적 민족주의 벗어나면 즐길 수 있어

애욕이나 애착은 대상을 자기 자신과 연관지어 생기는 이기적인 감정이다. 배타적인 애착심 없이 경기를 본다면 경기를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원래 올림픽 경기는 개개인의 기량을 겨루었다고 한다.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에서 12세 이상 시민이라면 누구나 올림픽 선수로 참가할 수 있었는데 국가를 대표한 것이 아니라 개인 자격으로 참가했다. 올림픽은 개인의 역량과 덕을 가리는 선의의 경쟁이었지 국가나 민족의 우열을 매기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다. 다음 국제대회에선 배타적인 국가주의나 민족주의에 휩싸이지 말고 가장 훌륭한 기량을 다투는 선수들의 경기를 관람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무슨 경기이든 우리나라 선수가 다른 나라의 선수와 경기할 때 배타적인 민족주의에서 벗어나 경기 자체를 즐길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한국과 관계가 원만하지 나라와 경기할 땐 민족적인 감정에서 벗어나도록 주의해야 한다. 스포츠를 통해 배타적인 자국주의를 해소해야지 역으로 배타적인 민족주의를 조장한다면 그런 스포츠는 하지도, 보지도 않는 것이 나을 것이다.

■ 동국대(경주) 불교학과

혜인 스님은 항상 남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하심'을 통해 참 불자의 보살행을 실천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자기 깨치고 남 편케하는 길

지상 백고좌

혜인 스님

(광덕사 회주)

단양 광덕사에 도착하자마자 산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대형 크레인을 보고 적지 않게 놀랐다. 아파트 20층 높이의 대불이 들어선다는 백만불전(百萬佛殿) 불사 현장에서 인부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혜인 스님을 발견했다. 근래 보기 드문 대작불사 현장을 뒤로하고 스님의 뒤를 따라 요사로 내려왔다.

인사를 올리고 근황을 여쭈니 "무고하다" 하신다. 한 말씀 듣고자 찾아뵈었다고 하니 스님은 대뜸 "불교가 무엇인지 아는가?"하고 되묻고는 게송을 읊으셨다.

원각산중생일수(圓覺山中生一樹)
개화천지미분전(開花天地未分前)
비청비백시비흑(非靑非白亦非黑)
부재춘풍부재추(不在春風不在秋)
무거무래역무주(無去無來亦無住)
무일물중무진장(無一物中無盡藏)

원각산에 한그루 나무가 살아있는데
하늘과 땅이 나누어지기 전에 이미 꽃이 피었네.
그 색은 푸르지도 아니하고 희지도 않으면 또한 검지도 아니하되
봄이나 가을 바람에도 영향을 받지 않네.
오고 감이 없고 또한 머무른 바도 없건만
한물건도 없는 속에 무진장의 보배가 들었나니.

스님은 게송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풀어 설명해 주셨다.

"원각산을 찾으려니 그 모양이 없습니다. 이런 산이 있기는 한 것인가 의심을 막 해요. 헌데 그 산에 한그루 나무가 있단 말입니다. 나무속에는 일체의 한 물건도 없는데, 그 속에 또 무진장 보배 창고가 있다 합니다. 온갖 금은보화, 성인(聖人), 지옥이 모두 이속에 들어있어요. 어떤 이는 이 나무를 '마음'이라고도 부르고, '우주'라고도 부르는데 다들 제 맘대로 이름을 지어 부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나무가 무엇인지를 찾으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거죠."

불교의 '무변광대(無邊廣大)'함을 이보다 더 실감나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것이 불교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 시작해 일평생을 이 마음이란 놈과 씨름하면서 그것을 찾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을 찾지도, 알지도 못한다면 잘 사용하기라도 해야 할 것입니다."

스님은 "불교의 근본은 마음을 찾는 종교요, 마음을 보는 종교요, 마음을 아는 종교요, 마음을 깨닫는 종교요, 마음을 잘 사용하도록 가르치는 종교다"라고 덧붙였다.

"불교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불교를 믿는 것은 마치 '소리 나지 않는 북'과 같아서 아무런 쓸모가 없죠. 불교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면서 불교를 믿어야 합니다."

상에 얽매이지 않아야

혜인 스님은 불교를 믿는 사람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일러 주었다.

"나는 불자님들을 대할 때 마다 늘 하심(下心)하는 마음을 먼저 강조하거든요. 매사에 하심할 줄 알아야 해요. 하심은 자신을 깨치고 남을 편하게 하고, 부처님 가신 길을 한 걸음씩 좇는 수행의 기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금경경>에 '무상즉불(無相則佛)'이고 '유상즉중생(有相則衆生)'이라고 했

시설물 유지관리 전문건설업 등록업체
古新堂 활성生황토

활성생황토란? 황토와 천연목재 추출 섬유질 및 물만을 사용하여 제조된 활성생황토 반죽은 시공 후 자연건조과정을 거치면서 황토의 복층 구조내에 존재하던 수분이 증발하면서 황토 원래의 기능성을 완전히 회복한다. 활성생황토 반죽은 적정 접착력의 황토 반죽으로서 시공성이 매우 용이하며 미려한 표면과 적정한 구조강도를 갖춘 실내적용 특수내장재이다.

활성생황토의 기능
원적외선 방출, 세포조직을 활성화하여 노화방지, 습도 조절 능력이 탁월하다. (동절기 습도 능력 탁월)
신진대사 촉진, 만성피로 등 성인병 예방에 효과, 천연소재를 이용한 활성생황토는 탈취능력이 탁월

황토가 좋은 점으로써 또한 탈취성능을 들 수가 있는데, 시멘트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강력한 탈취력으로 실내공간의 악취 등을 없애주어 쾌적한 실내 활경을 창출할 수 있다. 본 제품의 암모니아에 대한 탈취능력은 초기농도 179ppm에서 120분 경과후 10ppm까지 농도가 감소하였다.

▲활성생황토로 시공한 내부 모습

이런 분들에게 황성생황토 제품을 ...
• 어린이 아토피성 피부염 • 수험생의 수면부족 및 체력유지 • 두통환자 • 노약자, 산모, 알레르기 환자 • 숙취감 해소

▲활성생황토로 시공된 벽

활성 생황토의 효능
•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 • 항곰팡이 효과 • 항균 · 방충 및 냄새 제거 효과
• 원적외선에 의한 혈액순환 촉진(바닥재) • 습도조절 및 단열보온 기능 • 유해전자기파 차단

제품 성상 및 시공방법
• 황토, 나무 및 물을 주성분으로 제조된 친환경 주거환경 개선 내장제
• 우수한 탈취 능력, 습도조절능력, 보온, 단열, 방음능력 및 원적외선 방출 능력이 있는 제품
• 적정 점도의 반죽 상태로 시공이 편리하고 특히 건조 후 표면 갈라짐이 없는 제품
• 용기의 비닐을 제거한 후 교반기를 사용하여 교반, 이때 약간의 물을 첨가하여 점도 조절 가능
• 2~3mm 두께로 초벌 미장 시공 • 2~3일 자연 통풍 건조 • 충분히 건조 후 장판 및 도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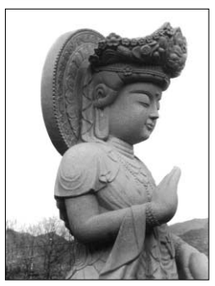
활성생황토시공
• 엄선된 생(生)황토에 나무에서 얻어진 자연성분과 순수한 물만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천연 건축용 내장 마감재
• 갈라져 쉽게 떨어져 시공이 불가능하였던 황토, 이제는 도배보다 쉽고 빠르게 특별한 기술 없이도 사용가능
• 콘크리트, 석고보드, 합판 등 구조재 종류와 관계없이 바닥 벽체 천정에 미장 혹은 도장(칠)가능

칠칠工營 合資會社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 냄새제거 시스템시공
세계최초 "通風 되며 防水"시공 · 시설물 유지관리 전문건설업 등록업체
대전시 중구 대흥동 455-2 한비B/D 4층 대표전화 042)2427-007 / 011-9413-6000 / 팩 스 042)2427-009
http://www.ks7700.co.kr E-mail:ceo@ks7700.co.kr

"천년전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옛 신라인은 수 많은 불교 문화유산을 남겼습니다. 아직도 이 땅 곳곳에 우리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신라인의 불심과 손길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석굴암은 불교신앙을 대표하는 부처님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국석재조각예술원은 이러한 신라인의 마음으로 소임을 다합니다. 천년 전 신라인의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문화재청등록 조각기능보유자



석재조각의 대가
동국석재조각예술원
전화: 031) 531-8736 팩스: 031) 531-5549 휴대폰: 011-284-5101

습니다. 어리석은 중생은 늘 상에 얽매이기 마련이에요. 그러니 더 하심하지 않을 수 없어요. 남이 나를 무시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내가 남을 무시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요즘 정치판이나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이놈, 저놈 하고 함부로 험구를 퍼붓는 일이 다반사더라구요. 면전이 아니라고 남을 낮추는 것은 더욱 잘못된 거죠. 항상 남을 높이고 나를 낮추세요. 고인(古人)의 말씀에 '도가 높은 자는 마음을 더욱 적게 쓰고, 벼슬이 높을 수록 항상 뜻을 낮추어야 한다' 했습니다. 복은 손 모아서 비는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낮추고 남을 존중하는 사람에게 가는 겁니다."

"얼음이 많으면 물도 많다"

혜인 스님이 이렇게 하심을 강조하는 데는 은사였던 일타 스님의 가르침이 크게 영향을 미친 까닭이다. 일타 스님은 스무 살에 대장경을 독파하고 스물여섯에 손가락 네 개를 연비해 부처님께 공양한 그야말로 '생이지지(生而知之)' 한 분이었다.

제방의 대율사로 존경 받으면서도 한없이 자신을 낮추고 자비로웠던 스승은 누구에게도 모질게 이야기하는 법이 없었다. 혜인 스님은 요즘도 매일 아침저녁으로 일타 스님에게 기도를 올린다.

간혹 어떤 이들이 일타 스님과 음성이나 언행이 닮았다고 하지만 정작 본인은 어림도 없는 일이라고 한다. 한없이 자비로웠던 스승에 대한 사무치는 마음은 세월이 가도 변할 줄 모른다.

세상살이가 갈수록 어렵고 힘들다며 다들 아우성인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혜인 스님은 평소에 불자들에게 행복에 대한 법문을 자주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질병, 전쟁, 취업, 재산, 자녀문제 등 자신의 처지에서 느끼는 불행은 사람마다 제각각이죠. 은사 스님께서 늘 해주시던 말씀이 '얼음이 많으면 물이 많고, 얼음이 적으면 물도 적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을 회피하기 보다는 난관에 당당히 맞서 물리치는 사람이 성취도 큰 법입니다. 진정한 불자라면 불행할 이유가 없습니다.

신심으로 불보살의 원력을 세우고 포기하지 않는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저도 어려서 출가했지만 가난으로 인한 고통이 끊이지 않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스무 살 무렵 <관세음보살보문품>을 읽은 후 관세음보살 염불에 무섭도록 집중하다보니 일순간 그동안의 난관들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뒤에 해인사 장경각에서 100만배 기도를 회향한 것도 이런 신심 때문이었습니다."

스님의 100만배 수행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전설처럼 전해지고 있다. 늦은 나이에 해인사 강원에서 공부하던 스님은 참선공부를 시작하면서 상기병으로 고생했다.

먹지도 잠들지도 못하고 고통스러운 날을 보내던 스님에게 당시 방장이셨던 성철 스님이 100만배 수행을 권했다. 성철 스님은 '절하다 죽은 사람 없으니 일단 시작하면 끝을 보라'는 당부만 내린 채 회향할 때까지 말없이 뒤에서 지켜봐 주셨다.

"100만 배를 하고 나니 숫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았죠. 그때가 아마 서른 살 때였나 봅니다. 성철 스님의 권유도 있었지만 그동안 죄지은 것 모두 닦고 참회하는 마음, 그리고 불법 만나게 해준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겁니다. 다만 처음부터 쉽지는 않았어요. 매일 5000배를 하는데 쉬지 않고 쏟아지는 코피가 제일 문제였어요. 피가 멈추기를 기다렸다 다시 엎드리고, 그러면 다시 코피가 쏟아지곤 해서 애를 먹었어요. 무릎이 곪아 걸음조차 떼기 힘들었지만 모든 게 끝나고 나니 언제 그랬냐는 듯 벌쩡해 지더군요. 그때 모든 것은 순간이고 육체의 고통 또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불자들에게 혜인 스님은 늘 포기하지 않는 삶의 자세를 당부하고 있다.

100만배 수행해도 정성이 문제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초인적인 수행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스님은 정작 자신의 100만배 수행을 대수롭지 않은 것인 양 했다.

"절은 자신을 한없이 낮추는 하심의 표현이죠. 단 한 배를 하더라도 정성으로 살아있는 부처님을 대하듯 절해보세요. 진짜 절 수행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스님들처럼 용맹정진 하지는 못하더라도 꾸준히 참회의 절을 하다보면 어느날 문득 많이도 바뀌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중생에게 참회의 공덕만큼 수승한 것은 없다고 생각해요."

혜인 스님은 마지막으로 절을 하고 참회를 함에 있어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을 '인격의 변화'라고 말했다. 마치 스님들이 선(禪) 공부에 임하는 것처럼 내가 절을 하고 참회를 함으로써 삶의 자세가 얼마나 달라졌는가를 때때로 점검해야 한다.

자신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절이나 참회라면 방법이 잘못되지 않았는지 점검을 하고, 정성이 부족했다면 정성을 더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글=조용수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64만평 규모 국제 신행도량 불사 추진

혜인 스님은 혜인(慧印) 스님은 1943년 남제주군에서 출생하여 14살에 출가했다. 일타 스님을 은사로 득도, 62년 자운 스님으로부터 비구계를 받았다. 해인사 강원을 나와 동화사 금당선원 등에서 10안거를 성만하고 71년에는 장경각에서 100만배 기도를 회향했다.

제주 약천사를 중창했던 스님은 무서울 정도로 저돌적이다. 원력을 세우는 규모 또한 남다르다. 혜인 스님이 중창불사를 시작하면서 약천사는 제주도를 대표하는 사찰이 됐다.

현재는 단양 도락산 광덕사에서 64만평 규모의 세계일화도량 건립불사를 추진하고 있다. 2006년까지 세계 108개국 불자들이 함께 생활하는 국제 신행도량을 만들겠다는 원력을 세우고 있다.

대형불사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많은 요즘, 혜인 스님은 불사는 어떤 의도로 왜 하는지,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를 먼저 따져야지 무조건 대형불사라고 지탄받는 것은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 지금 하고 있는 불사는 효봉 스님께서 늘 강조하시던 '사해일가 세계일화(四海一家 世界一花)'라는 법구를 현실로 구현하기 위해 10여 년 전부터 구상해오던 것이라고 한다. 법문집 <행복을 여는 부처님의 가르침>(효림刊)이 있다.

법현 스님의 스님이야기 — 법철 스님 (上)

천주교의 성지라고 알려져 있는 천진암(天眞庵)에 가서 변기영 신부를 만났을 때다. 천진암에서 찍은 홍보물에 불교에 대해서 잘못 표기한 것이 있어서 바로잡기를 요구하러 갔었다.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자기는 천주교인이지만 1년에 한번 정도는 인도에 간다며 나보고 인도를 몇 번이나 다녀왔느냐고 물었다.

한 번도 못 가봤다는 말을 하고 부끄러운 느낌이 들어 마음속으로 빠른 시일 안에 가보겠다는 원을 세웠는데 벌써 10년이 훌쩍 넘어가 버렸다.

바쁜 법회활동으로 성지 순례를 많이 못하지만 불교방송이나 불교텔레비전에서 사찰순례를 가자고 하면 말없이 따라 나선다. 가는 도중에 사찰의 구조와 역사 및 불교의 기본 교리 등에 관

그림 · 문병성

해서 차를 갈아타면서 설명해주고 사찰에 가서도 아는 대로 전각의 구조나 가람배치와 스님이야기를 해주면 신도들이 매우 즐거워하였다. 사찰순례를 가 보면 사찰기둥마다 게송을 적어놓은 주련(柱聯)이 있고, 법당의 뒷벽에는 부처님의 일생이나 소의 발자국부터 뒤꽁무니 뿐 아니라 소를 잡아탄 소년 그리고 색깔이 하얗게 변하는 소 그림 등을 만날 수 있다. 바로 선종(禪宗)의 마음 찾는 이야기를 비유적으로 그려 놓은 그림인 십우도(十牛圖)또는 심우도(尋牛圖)이다.

마음을 소에 비유하여 찾아가서 자기 것으로 하고 나중에는 아무것도 안보이거나 사람들이 많은 시장 속으로 들어가는 그림이 있다.

심우도의 마지막 그림 같은 스님이 바로 법철(法哲) 스님이다. 스님은 나의 사제다. 운산 스님을 모시고 정릉 천중사에서 같이 살았다. 은사스님을 회주로 모시고 내가 주지랍시고 살림을 맡고, 법철 스님과 사숙인 도종 스님과 다른 사제들 그리고 지금은 출가해 수행을 열심히 하고 있는 지경 법사 등 제법 많은 식구가 한솥밥을 먹고 있었다. 말이 주지이지 태고종 총무원 일이나 밖으로 경불련, 불교레크리에이션포교회, 성북구 사암연합회 등 걸린 일이 많아서 많이 나가도는 경향이 있을 것 같은 나를 배려해서 사제들이 일을 나누어 맡아주었다.

그 중에서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몸이 솜덩이 같이 피곤해서 새빨간 눈을 하고서도,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를 가지고도 예불에 빠지지 않았던 법철 스님이야말로 든든한 기둥이었다.

학교에서의 모임을 파하고 들어온 시간이 열두시이건 새로 한시이건 꼭 예불을 모셨다. 처음에 내가 소임을 맡게 되자 "나 못박아 놓고 몰아다니려고 하지요?"하고 우스개 소리를 하였다.

나는 우스개 소리인줄 알면서도 정색을 하고 말했다. "절대로 내가 예불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니까 마음 놓고 스스로를 위해서 예불하시게. 나도 백암 스님께 배운 것이 있네." 예불을 지극히 여기는 마음은 태고종 종정을 역임하신 백암(栢巖) 스님께 배운 적이 있었다. 성북동 태고사에서 모시고 살 때 백암 스님은 우리들이 한 번이라도 예불을 빼먹을라치면 조용한 목소리로 그러나 근엄하게 타이르셨다.

"중이 예불 한 번 빠지면 머슴이 쌀 한가마니

늦은밤 절에 돌아와도 예불 꼭 챙기는 수행자

불태워 없애버린 것과 같다. 단 세 번 절을 하더라도, 선사들이 죽비 세 번 치더라도 빠지지 말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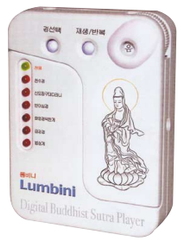
법철 스님은 절에 살기는 했지만 낮에는 중학교에서 한문을 가르치는 정식 교사였다. 천중사는 도심속의 사찰이기는 해도 산에 자리하고 있어서 도량석 목탁이나 종소리를 마음껏 낼 수 있는 흔치 않은 사찰이다. 도량석을 내가 하면 종성을 법철 스님이 하고, 도량석을 그가 하면 종성을 내가 했다. 장중한 음색인 나의 그것에 비해 법철 스님의 종성은 전통적인 음색의 비탄조라 마음의 울림이 컸다. 종마치 울리는 것부터가 정말 남다르게 제대로 배운 느낌이 들었다.

출가 수행자로서 여러 가지 추억이 있겠지만 달빛이 시리게 들어오는 법당에 앉아 종마치를 치면서 장엄염불을 청아하게 하는 맛이야말로 손가락에 꼽을 수 있다. 장엄염불은 시식에서 주로 많이 쓰기 때문에 슬픈 곡조로 하라고 어른들이 말씀하시지만 나는 그 내용이 장중하고 깨달음의 소식을 담은 것이기에 힘 있게 하고 있지만 법철 스님은 어른들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계속)

이번 호부터 '스님이야기'를 연재하는 법현 스님은 중앙대 기계과를 나와 1985년 운산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동국대 불교학 석사학위를 받고 태고종 교무 · 총무부장, 종단협의회 사무국장, 동방불교대 교학처장, 경불련 공동대표, 정릉 천중사 주지 등을 역임했다. 현재 태고종 교무부장, 관악산 자운암 상임법사를 맡고 있다.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건강정보 수험생에게최고 은행석온열복대
선물로도 최고 건강에도 최고

생명의 빛 생명의 氣
원적외선 "침"의 효능! 신비로운 은행석 온열복대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 하면 질병의 원인이 된다. 은행석 온열복대는 70℃이상의 강한 열과 생육광선이 발산되어 원적외선 "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아서 가볍게 두들겨 주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및 소화불량. 만성위염, 생리통. 허리디스크. 고관절, 어깨결림등을 자연적 치유되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베게속에 넣고 평생 사용으로 늘~건강하고 편안한 잠자리
건강을 나누는 (주)금강닥터에서 북한 3대명산품으로 소량만 생산되며 일부 고위층만 사용하는 세계희귀의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제조한 신비로운 은행석 온열복대, 은행석 베개볼, 은행석 목걸이를 개발하여 화제가 되었으며 선풍적인 인기와 함께 판매되어 사용자들에게 좋은 반응과 기적같은 효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은행석을 베게속에 넣고 주무시면 평생 뇌졸증. 중풍. 치매. 고혈압. 천식등이 예방되며 기억력이 살아나고 혈압이 떨어집니다. 또한 하얀얼굴로 미백효과도 뛰어나요.
하루에 다섯시간만 주무셔도 여덟시간 잔것과 같은 숙면을 해 머리가 맑고 상쾌하며 늘~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합니다. 24시간 착용하는 은행석 목걸이와 같이 사용하시면 어깨, 목의 뻐근함을 부드럽게 하며 그 효능을 극대화 시킬 수 있습니다.
※ 오랫동안 기도를 하시는 분이나 의자에 장시간동안 업무를 보거나 공부하는 수험생의 허리교정, 디스크 치료 및 부족한 기력회복 ※ 허리통증 완화 ※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
※ 수면이부족한 수험생 (특히 여학생에게는 필수적입니다.)
문의전화(주)금강닥터(02)3210-3170 ♦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합격기원 디지털불경 룸비니
2000만 불자님의 필수품
부처님은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불경역시 내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세계최초로 탄생한 디지털 불경 재생기 '룸비니'
룸비니와 함께 기도정진시 부처님의 자비로 합격의 영광을
최고의불경! 선물로도 최고!

룸비니에 관음도가 있으므로 늘 휴대 하시면 수호신역할도 하며 소원성취 할 것입니다.
(규격 8.5×5.2×2.0cm) 가격 58.000원

독경 :효동선각스님
테이프 : 8ea set
가 격 : 20.000원

C D : 2ea set
가 격 : 10.000원
룸비니는 담배 곽 크기만 하고 가벼워 휴대하기가 편하다. 불자라면 누구나 사찰,높은 산 등 언제 어디서든 테이프나 CD가 없어도 듣고 싶은 불경을 마음대로 들을 수 있고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수험생을 두신 부모님께서는 합격기원을 위하여 기도 정진시 디지털 불경 룸비니와 함께 기도정진 하시면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의 자비로 수험생에게 합격의 영광을, 불자님에게 대광명 소원성취 할 것입니다. 불자님의 심금을 울린 효동선각 스님의 독경을 듣다보면 모든 근심 걱정 번뇌가 소멸되며 일념무아 됩니다.
합격기원 300set 한정 특별할인판매
● 패키지1: 디지털불경 룸비니, CD2개 테이프 8개, 특별가 58.000원 (팩키지1에서 테이프 3개시 50.000원)
● 패키지2: 디지털불경 룸비니 CD 1개 특별가 39.000원
● 문의전화: 02)3210-3178
● 입금계좌: 농협(1143-12-049474 송명화)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수험생 北韓의 세계적인 神秘와 靈驗의 金剛念珠
합격의 영광을 금강 필승 염주
합격척척

▲ 108염주, 손목염주 160.000원
시험준비를 하는 수험생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의 안정이다. 시험준비를 하는 동안 마음이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다. 금강필승염주를 수험생방 또는 거실에 걸어놓으면 금강의 밝은 지혜와 강한氣로 신기하리만큼 마음의 안정을 주며 필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험 준비를 방해하는 모든 잡귀들을 다 쫓고 합격의 행운을 안겨주는 신비와 영험의 금강필승염주입니다. 북한의 세계희귀 금강야석이 주성분이며 60여종의 미네랄 원소와 93%의 높은 원적외선, 강한음이온 등이 발산되어 건강에 최고이며, 북한3대 특산품으로 평안도 명산에서 소량이 생산되는 금강염주입니다.
선물로도 최고! 성불에도 최고! ※ 수험기간에 금강염주1set를 구입한 분에게는 은행석 베개볼 1인용을 증정합니다.
2가지 소원이 꼭 이루워지는 신비와 영험의 금강염주

▲ 12단주,108, 손목염주 225.000원
금강염주는 금강의 강한氣와 지혜로 2가지 소원이 꼭 성취되며 가족의 건강을 지켜 드리고 동서남북의 복을 불러 오며 몸에 지니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안정되며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강한 마음과 힘으로 승리할 수 있는 신비와 영험의 금강염주입니다. 또한 악귀와 잡귀들이 보기만 해도 도망쳐서 액운과 화를 쫓고 기도 정진시 부처님의 대광명, 대성취를 이루며 가피를 입을 수 있습니다.
108염주,12단주 195.000원
12단주,손목염주 110.000원
※ 별도 구입시 가격표
108염주 135.000원
12단주 85.000원
손목염주 38.000원
이런분은 스님께 보시 또는 본인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분 ❖ 수험생 자녀를 둔 부모님
❖ 사업이 안되어 고민하고 계신 분 ❖ 고시준비 하시는 분
❖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분 ❖ 결혼배필을 찾고 계신 분
❖ 승진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분 ❖ 중환으로 투병중인 분
❖ 자녀가 없어 고민하고 계신분 ❖ 건강(氣)이 약하신 분
문의 및 신청전화 (02)723-0909
금강염주는 사용할 본인이 점안식후 사용하세요.
잉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신용카드로도 분할구입 가능 합니다.
농협:743-02-563237 정해철
金剛念珠社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177 대형 B/D 406호
전국대리점모집 사찰매장,불교용품점,개인사업자